

## 성역할 구분에 대한 이론 고찰과 창문이론 명명하기

이 선 자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

이 연구에서는 첫째로 성역할 구분에 대한 이론들을 개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근본적으로 심리학에 깔려 있는 구조주의와 구성주의 흐름을 발견하였다. 즉 주체적-친교적, 도구적-표현적 이분화 그리고 사회구조 가설은 성역할의 구조주의적(structural) 흐름의 이론적 배경이고, 이에 대조되는 구성주의적 흐름은 전통적인 정신분석이론이나 사회학습이론, 인지발달이론들을 포함한 여러 다른 이론들 즉 성역할 전생애 발달이론, 성역할 역행·확장이론, 발달적 성역할 초월이론들을 들 수 있다. 또한 Bem이 심화시킨 양성성 이론의 핵심 개념들 즉 성역할 혼합이론, 성역할 초월이론 그리고 최근의 성역할 해체이론은 현저하게 구성적인 접근 배경이다. 최근에 미국심리학회 연차 대회(1996. 8)에서 Bem이 발표한 성역할 해체이론은 근자에 큰 힘을 가지고 역사에 대두하는 구성주의 곧 포스트 모더니즘을 대표한다고 보겠다. 그는 초기에 논의하였던 자신의 양성성 이론을 수정 보완하였고 오늘의 포스트 모더니즘적 이론 배경으로 가히 심리학의 미래에 도전하고 있다.

둘째로 이렇게 분석된 두 측면의 이론적 배경을 재조명해 보았다. 그 첫 번째로, 구조적 측면을 근거로 한 이분법적 사회구조 속에서 남자가 향하고 있는 방향과 여자가 향하고 있는 방향에 창문(windows)이라는 현대판 pc단어를 대입해 보았고, 이에 “창문이론(Windows Theory)”이라는 새로운 감각의 이름을 붙였다. 남녀의 차원을 논의할 때는 “남녀의 창문이론”으로 명명하고 부부의 차원에서 논의할 때는 “부부의 창문이론”이라고 명명해 본다. 그 다음으로, 구성적 측면을 근거로 한 양성성의 혼합 모형인 성역할 역행이론 또는 확장이론, 초월이론, 해체이론들을 들어 새로 명명한 “창문이론”의 틀에 대입하여 이를 그림으로 시각화함으로써 두 부류의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이론들을 통합시켜 보았다. 이로서 이 연구를 통하여 개관적으로 고찰되었던 성역할 구분에 대한 이론의 구조와 구성과의 관계가 한 눈에 파악된다고 하겠다.

### 1. 서론

우리 사회에서는 생물학적으로 부여된 성이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라고 본다. 성격 특성이나 사회적 역할은 상관이 없거나 주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단정짓는다. 그러므로 가장 근본적인 사회적 구분은 성의 구분에 의해서 시작된다. 동양이건

서양이건 간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가 근본적으로 이원적이라는 사실을 관찰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받아들여 왔다. M. Eliade(1965)은 인간의 즉각적인 경험들은 대비적인 것들의 쌍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첫째가 기본 생리적인 성의 이원성, 즉 남성과 여성, 남성적 원칙과 여성적 원칙이라고 지적하였다. 어느 사회에서나 성의 이분적 차이를 인정하며 성과 관련시키는 특징적 과제와 태도, 그리고 기대와 책임감 등을 존속시킨다. 오랜 세월을 걸쳐 강화되어 온 이런 관념들은 고정화되어 고정관념(stereotype)을 이룬다. 인종이나 사회계층보다도 성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사회 안에서 개인의 위치가 정해진다.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남자 또는 여자로서 보게 되며, 그 사람의 성에 의해 그에게 펼쳐지는 생의 무대가 결정된다.

사회와 문화는 성의 이런 근본적인 구별을 정할 뿐 아니라 불평등하게 한다. 사회의 고정관념은 편견을 낳고, 편견은 차별 행동을 낳기 때문이다(방희정, 1966). 남자와 여자가 “같다, 다르다(same vs different)”라는 개념은 “옳다, 틀리다(right vs wrong)”라는 개념으로 전환되고, “좋다, 나쁘다(good vs bad)”로 결정된다. 또는 “가치가 있다, 보잘것없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가치관의 결론으로도 옮겨간다. “잘한다, 못한다”라는 능력 차원으로 평가된다. 사람들의 모든 행동이나 생각이 한 성(sex)은 “자대(ruler)”가 되고 다른 성은 틀렸으니까 모든 속성이나 행동은 그 자대에 맞추어 “고쳐야 한다“. 급기야는 “높다, 낮다”의 고하 관계로 발전되어 한 성은 더 높이 간주되어 우월감을 갖으며 “지배자, 지도자, 군림자”로서의 위치를 굳히고 우월성이 강조된 나머지 그렇게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또 다른 성은 낮게 평가되어 열등의식을 부여받으며 “복종자, 추종자, 하인”의 격으로서 처신을 강요받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남자나, 남성성, 남성적 속성”을 “여자나, 여성성, 여성적 속성”보다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 남자가 갖는 신분은 주되고 일차적이며 여자가 갖는 신분은 주변적이며 이차적이다. 사회의 이러한 두 가지 특질, 즉 성(sex)에 대한 관념과 남성 우월성간의 구분은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다. 이것은 남성의 우월성을 제도화하였기 때문에 성구별이 강조된 것이다.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가 굳혀졌고 가치 기준, 제도, 역할 그리고 책임에 대하여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여성을 반대하는 사회적 심리가 자리를 잡는다.

여기에서 당연하게 파생되자나 여자 모두에게 생기는 편견으로서 여자에 대한 평가절하이자 여성성에 대한 평가절하, 그리고 여성이 하는 일 또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평가절하이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우리의 생활은 비현실적이고 또 다음과 같이 여성에게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 첫째, 여성의 경험보다는 남성들의 경험을 더욱 일관성 있게 인정한다. 결과적으로 여자의 참 모습을 왜곡시킨다. 둘째, 거의 모든 상황에서 여성에게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거나 여성을 포함시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여겨지면 여성은 삭제되고 거절된다. 셋째, 여성에 대한 수용은 하지만 암암리에 또는 명백하게 여성이 하는 행동이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시하며 여성을 비하시킨다(Kaplan & Sedney, 1980).

이상 살펴본 바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사회에서는 남자냐 여자냐 하는 생물학적으로 부여된 성이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결정하고 구분짓는 주요인이 되며 남녀의 성역할이나 남녀의 성격 특성은 그에 준하여 나타나고 구분되어지고 역사와 전통을 통해 이어져 나간다고 하겠다. 이렇게 사회가 만들어 온 불균형의 평가는 보편적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심리학

분야를 포함한 많은 관련 학문의 학자들이 연구하고 정리하여 이런 현상의 이론을 정립하였다. 그들은 또한 이론의 다양성이나 개념의 변화를 주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론의 다양성이나 변화 중에는 전통을 고수하는 개념이 성역할 구분 이론의 밑거름이 되는가 하면, 어떤 탐구는 극단을 달려가면서 사회의 완고한 관념이나 틀이 허물어져야 한다고 제안한다(Bem, 1996). 심리학을 포함한 많은 주변 학문들의 견고한 벽과 사회적으로 제약된 한계가 파괴돼야 한다는 해체 운동이 전개된다.

이 연구에서는 첫 번째로 성역할 구분에 대한 이론들을 개관 분석해 보겠다. 그 결과 이는 구조상(structural)의 이론적 배경과 구성상(content)의 이론적 배경으로 나누어져 각각 검토가 되겠다. 둘째로는 이렇게 분석된 두 측면의 이론적 배경을 재조명해 보겠다. 여기에서의 첫 번째는 구조적 측면을 근거로 한 이분법적 남녀 구조와, 구성적 측면을 근거로 한 양성성의 혼합 모형인 성역할 이론들을 검토하면서 컴퓨터 시대의 새로운 감각으로 이름을 붙여 보겠고, 그 다음으로는 구성상의 내용을 구조상의 틀에 대입하여 이를 그림으로 시각화시켜 보려 한다. 이에 본론에서는 먼저 성역할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서 시작하겠다.

## II. 본 론

### 1. 성역할의 정의

성역할(sex-role)은 한 개인이 그가 속하고 있는 문화권 내에서 남성 또는 여성의 행동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는 특성들을 수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실로 사회는 남성과 여성에 대하여 특정의 행동 양식이나 태도를 성역할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문화에서는 남성

과 여성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다.. 아동이 남자나 여자나 하는 성별화(sex-typing)는 출산과 동시에 주위환경에 의해 시작되어 유아기, 아동기를 거쳐 성역할 발달이 이루어진다. 그후에도 계속해서 청년기를 거치는 청년으로서,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를 거치는 어른으로서 전생애를 걸쳐 그가 남자나 여자나 라는 사실은 생활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Block, 1973; Hefner 외, 1975). 이런 고정 관념적(stereotype) 성역할은 남자 여자의 외적 행동, 정서적 반응, 인지적 기능, 내적 태도, 심리적 적응 및 사회적 적응을 뚜렷하게 나타내게 한다.

### 2. 성역할 구분의 구조적인 이론 배경

고정 관념적 특성이란 그 특징들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공인되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용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 이 물음은 여성과 남성이 행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보다는 여성형과 남성형이라고 명명되어 온 추상적인 특성 군에 대해서 나온 것이다(표1과 표2의 도표화 참조). 물론, 일반적인 말로 남성성은 남성같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성성은 여성같이 행동함을 뜻한다.

표1. 사회 구조 속에서 남자에게 부여한 남자의 핵심적 특성

남자, 남자의 속성 남성의 외부 세계와 합류 주인, 바깥 사람, 주체적(agentic), 도구적(instrumental) 공격적, 신체적, 힘, 권력, 영향력, 투쟁적, 지배적 경쟁적, 독립적, 객관적 지도적, 주장적, 정의적 성능력, 능력적, 논리적 활동적, 결정권 다양한 직업 많은 직장 확장된 영역, 등등등
---

표2. 사회 구조 속에서 여자에게 부여한 여자의 핵심적 특성

여자(女子), 여자의 속성  
 가정 내의 모든 일과 합류,  
 어머니(母) 속성, 양육적,  
 집사람, 안사람, 안주인, 아내  
 친교적(communal), 표현적(expressive)  
 동조적, 힘없음,  
 의존적, 권력이나 영향력 없음  
 감정적, 추종적,  
 언어적, 주관적, 배려적, 구체적  
 제한된 직업, 제한된 직장,  
 작은 영역, 등등등

많은 학자들이 그들의 연구에서 여성성과 남성성의 요소들을 밝히기 위하여 다음의 중요한 개념적 접근법에 의존하였는데 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체성-친교성 이분법 (agentic-communal dichotomy):

David Bakan(1966)에 의해 발전된 모델로서 남성성과 여성성은 인간 상호작용의 두 가지 기본 양식과 일치한다고 제안하였다. 즉 남성성은 행위 주체성(agency)과 일치하고, 여성성은 친교성(communion)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행위 주체성은 개인 보존적 특질로 표현되는 것으로 자기 보호, 자기 주장, 자기 확장, 독립성, 지배하고자 하는 충동 등을 포함한다. 친교성은 접촉, 개방성, 동조, 독립성 결여, 비계약적 협동 등의 상호 관계적 특질로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행위 주체성은 개인의 진보와 관련되는 반면, 친교성은 개인의 지역사회와의 상호관계와 관련되어 있다.

2) 도구적-표현적 이분법 (instrumental-expressive dichot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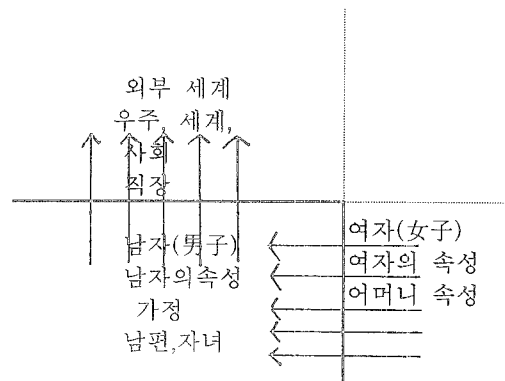
Parsons와 Bales(1955)에 의해 제안된 모델로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도구적(instrumental) 행동과 표현적(expressive) 행동이란 용어로 개념화한다. 그들에 따르면, 도구적 행동은 목

표 지향적이며, 목적과 성취에 대한 인지적인 강조를 반영한다. 표현적 행동에는 지원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이 포함되며 타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에 대한 강조를 반영한다.

3) 사회구조 가설 (social structure hypothesis):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한 개인이 갖는 남성 또는 여성의 행동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는 특성들을 수행해 나가는 성역할에 대한 사회, 심리학적 사고는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Parsons나 Bakan의 이분법적 이론을 근거한 사회 구조 가설에서 비롯된다. 이에 따르면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 사회에서 남자는 남성으로서 사회나 직장의 세계로 방향 지어졌고 이를 향하여 내다보며 진출하며, 여자는 여성으로서 현모양처라는 이름 하에 사회나 직장이 아닌 가정과 남편 그리고 아이들에게로 방향 지어져 있어 이를 들여다보고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그런 남자 여자의 사회구조를 말한다. 우리의 성역할 단어 중에 남편은 바깥분, 바깥양반, 또는 바깥주인으로 불리는가 하면 부인을 아내, 안주인, 또는 안사람으로 통하는 것으로 이 이론을 대변해 준다고 보겠다. 그림 1은 남녀의 사회구조를 시각화한 것으로 참조되기 바란다.

그림1 사회구조가설에 따른 남녀가 향한 방향



이 그림에서는 남자 여자의 영역의 넓이조차도 현실 그대로 크고 작게 구분해 보았다.

### 3. 성역할 구분의 구성적인 이론 배경

#### 1) 전통적 성역할 발달이론:

정신분석이론, 사회학습이론, 인지발달이론은 전통적인 이론들로서 권위 있고 설득력 있는 양극성의 이원론적 성역할 이론이다. 앞서 논의된 구조적인 측면보다는 이론의 구성적인 배경이 된다. 이들은 아동의 성역할이 가족을 중심으로 어떻게 발달하는가를 다룬다.

- ① Freud의 정신분석: 아동은 성기의 차이를 지각하면서 비롯된 일련의 사건과 가족 역동성 때문에 동성의 부모를 닮아 간다.
- ② Mischel의 사회학습이론: 아동은 자신과 유사하다고 지각되는 사람의 행동을 더 획득하는 경향이 있고, 강화가 보장되는 성에 적절한 행동을 실행하는 경향이 있다.
- ③ Kohlberg의 인지발달이론: 아동이 자신을 남자나 여자로 분류한 지식과 일치하는 성 유형화된 행동 양식을 학습한다고 한다. 그는 성역할 발달이 인지 발달의 부산물이라는 주장이다. 즉 아동들은 자신이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생각하고, 그런 다음 자신의 행동을 수정시켜 남자로서 아니면 여자로서의 정체감을 일관성 있게 유지한다(김태련, 이선자, 1986). 여기서도 프로이드처럼 성역할 발달은 지적인 발달 과정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는 미셀처럼 실제적인 성역할 행동은 환경 내의 모델을 통해 학습된다고 믿는다.

무엇보다 성역할 발달에 대한 이 세 전통적인 이론들의 주요 개념은 동일시이다. 어떤 학자는 모방이나 모델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과정은 가정에서의 아동이 타인

의 특징 중 몇몇을 취하여 그것을 자신의 성격의 일부로 만든다는 데 대부분 동의한다. 성역할 동일시를 이야기할 때, 심리학자들은 보통 아이들의 부모 중 한 사람, 특히 동성 부모의 특정 행동들을 따라 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한다.

각각의 이론들은 각기 문제점을 가지지만, 이 분야의 사고 내용들 중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므로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역할 발달은 적절한 성역할을 발달시키는 것 이다라고 정의되어 왔고 전통 이론가들은 아동이 학령기에 도달하여 남이나 여아에게 적합한 행동을 습득하게 되면, 모두 잘 되어 간다고 간주해 버렸다. 그 때문에 아동기 이상으로 확대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그 대안 모형을 논의하면서 새로이 대두되는 관점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2) Block의 성역할 전생애 발달이론:

인생의 전 범위를 다루는 발달심리학자인 그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깨달으면 고정 관념적인 성역할을 획득하게 된다. 동시에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정의해 놓은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에 남아들은 자기 감정을 통제하도록 훈련받고, 여아는 공격성을 억제하도록 강화된다.

그후 사람들은 보다 내성이 생기고,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을 발달시킨다. 동시에 엄격하게 훈련받아 오던 성역할은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기 위하여 완화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완화를 통해 사람들은 자아 내에 있는 남성적 요소와 여성적 요소의 잠재적인 갈등을 깨닫는 단계에 도달한다.

그는 성역할 발달의 가장 높은 단계는 양성적 단계라고 한다. 즉 한 개인이 자신의 여성적인 특성 및 가치를 남성적인 특성과 통합할 수 있는 단계이다. 사람들은 행위 주체성과 친

교성을 융화시키고, 여성성과 남성성을 융화시키는 것을 배워야만 성역할 발달이 완성된다고 주장한다.

### 3) Jung의 성역할 역행-확장이론:

전통적으로 양극적인 성역할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단 무의식의 개념에서 아니마(anima: 여성성)와 아니무스(animus: 남성성)는 남녀 누구나 소유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다만 그 특성의 정도가 문제될 뿐이다. 내면적인 층위의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어떻게 외면적인 층위로 표출하느냐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특성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즉 중년기에는 아동기 때 거부되었던 이성의 특성들을 나타낸다고 지적하고 인생 후반기에는 남성이 여성적이 되고 여성은 남성적이 되는 역행성을 이론화하였다. 사실상 여성들은 지금까지 자신을 지배해 왔던 여성적 특성들도 유지하면서 남성들만의 특성으로 간주되었던 자아 결정이나 행동을 드러내면서 남성적 성격 특성이 외현적으로 된다. 남자들도 역으로 행동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자신을 지배해 왔던 남성적 특성들도 유지하면서 여성들만의 특성으로 간주되었던 양육적이며, 가정적이고 세밀한 행동을 드러내면서 여성적 성격 특성이 외현적으로 된다. 즉 중년기 성인은 자신의 극단적인 성역할만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성의 성역할로 변화하기보다는, 자신의 남성적인 측면과 여성적인 측면을 통합하여 확장하는 확장이론을 제시한다(그림3 참조).

Neugarten과 Gutmann(1968)은 이러한 관점에 지지하는 근거 자료들을 가지고,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의 자아 중심적인 공격 충동을 더 많이 허용하게 되며, 남성들은 양육 충동과 유친 충동을 더 많이 수용하게 된다고 한다.

### 4) Hefner의 동료들의 발달적 성역할초월이론:

헤프너와 동료들(1975)은 발달적인 측면에서 성역할 초월의 개념을 제시한다.

- ① 1단계---성역할에 대한 개념이 초기에는 미분화 상태로서 사고는 총체적인 특징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자신을 남자나 여자로 구분해서 지각하지 않으며, 이때의 경험은 비조직화된 지각의 덩어리일 뿐이라는 것이다.
- ② 2단계---경험과 사고가 발달해 감에 따라 아이들은 성역할에 대해 양극화된 개념을 갖게 된다. 이때에 아이들은 자신이 소속된 성의 성역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여성의 역할이라고 개념화된 것은 거부한다. 이시기에 아나는 자신을 남자 또는 여자로 지각하고 따라서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이 된다.
- ③ 3단계---이 단계가 바로 성역할 발달의 초월 시기이며 이때에 개인이 보다 적응적이며 자신에게 적절한 방향을 채택하기 위해 양극성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그림4 참조).

### 5) Bem이 제시한 양성성 이론의 심화된 핵심:

- ① 초기의 성역할 혼합이론: 양극성의 배합 (combination of bipolarity)
- ② 그후의 성역할 초월이론: 심리적 양성성 (탈 범주화 decategorization)
- ③ 최근의 성역할 해체이론: 구성주의적 접근 (포스트 모더니즘 post-modernism)

Sandra Bem은 최근 미국의 심리학회 발표에서 (APA 104차 연차 컨벤션, Aug. 9-13, 1996, Toronto, Canada. "Androgyny Revisited: What and Where are it's Conceptual Counterparts Today?") 양성성 개념의 재검토를 논의하였다. 양성성 성역할에 있어서 현대의

대응 개념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 라는 주제로 성역할에 대하여 더욱 심도 있고 확장된 그리고 더욱 초월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의 새 저서인 *The Lenses of Gender*를 중심으로 다루면서 사실 어떤 이론도 실제적인 여성성이나 남성성을 총칭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며, 초기의 양성성 이론조차도 총칭적으로 제시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최초로 양성성 성역할 개념을 정립시켰을 당시에 활용했던 양성성 이론의 모형들조차 능가하면서 초월론적 성역할 (sex-role transcendence) 이론을 정교화 시켰다. 즉 남성성 여성성의 탈 범주화 개념으로 심리적 양성성이라 칭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녀의 초기 성역할 검사(BSRI) 연구를 통하여 발전시켰던 양성성의 핵심 개념은 시종 같음을 밝혔다. 그에 의하면 남녀 성역할의 미래지향적인 이상형을 고려해 볼 때 생물학적으로 몸(body)에는 여성적 속성과 남성적 속성의 성(sex)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심리적인 활동이나 행동에는 양극성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성역할 행동은 한 개인 안에서 남녀의 속성이 배합(combination)된 결과라고 하였다. 그 배합이 일어나는 기본 방식은 곧 여성적 특성과 남성적 특성들이 결합되어 구성될 수 있는 혼합(hybrid) 모형이다.

Bem에 의하면 남성성과 여성성, 단순히 이 두 가지 성범주(two and only two sex categories)만이 이 사회에서 진짜 정상적이거나, 진짜 소망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어느 때건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방식뿐 아니라 두 가지가 다 혼합된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 남성성과 여성성이 어떤 비율로든지 혼합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남성적 성격과 여성적 성격은 분화되어 있기보다는 개개인 내에 공존하고 있다. 전형적인 여성을 감정적이고 직관적이며 양육적이고 민감하

고 의존적이라 하고, 전형적인 남성은 주장적이고 독립적이며 이성적이고 경쟁적이고 비감정적이라고 묘사해 왔던 성격 특성들이 이제는 한 사람 안에서 공존하여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두 성의 특성이 적절히 잘 공존하는 양성적인 사람은 더 적응력이 우수하다는 주장이다(이선자, 1996).

여태껏은 사람들이 남성성 혹은 여성성의 양극성에 자신을 맞추어 살아야 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비정상인(anomaly)으로 간주되어서 반드시 고쳐지거나, 또는 치료되어야 했고, 심지어는 정신이상으로까지 간주되거나 그렇게 취급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기존의 성에 사람을 맞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맞는 성을 창조해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범주들은 양성성, 이성성, 동성성 등 등 그 외에도 아주 아주 많은 성의 종류(multiple sexuality)로 배합되거나 혼합될 수 있다. Bem은 Cornell 대학의 인류학 교수인 Katherine March(? 카세트 녹음테이프를 통하여 들은 단어로 이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참고)가 설명한 색상의 범주에 비유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사용하던 크레용과 속의 색깔들이 각각 다르게 혼합되어 연속적으로 다른 색상을 만들어 내던 것 말이다. 즉 색상의 혼합된 정도와 량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색깔의 종류를 만들어 내듯이 인간의 성역할 특성이 양극적인 이원론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의 경직된 역할에서부터 그 두 가지의 혼합적인 정도와 량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형태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수없이 구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성역할도 이제는 고정 관념적이거나, 정형화된 개념이 아닌 누구나 저마다 독특하게 혼합된 방식으로 성역할의 구성을 수용하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의한다.

더 나아가 양극성의 이원화된 성을 균질화하기 위해서는 흑백 논리의 생물학적 남성성,

여성성은 생식(reproduction)을 위한 것 외에는 가장 적은 의미 부여를 강조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여태껏 군림해 오던 자연적인 특권을 누릴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두 개의 사회 문화적인 벽과 개념은 무너져야겠고 해체 되어야 하며 더 많은 다른 성범주들이 들어설 자리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욱 강조시키고자 하는 것은 성역할의 고정 틀이나 기준 그리고 갖대 자체가 사라져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개념조차도 무너져야 한다는 것이다. 곧 gender라고 하는 사회적 제도와 습관이 폐지되어야 한다. 다음의 각종 성범주들 즉 남자(man), 여자(woman), 남성성(masculine), 여성성(feminine), 양성성(androgynous), 이성애(heterosexual), 동성애(homosexual), 게이(gay), 레스비안(lesbian), 성일탈자(queer), 양성애(bisexual), 다중성 소유자(multiple-sexuals), 성전환자(sex reversed, intersexual), 비정상자(anomaly), 성변태자 등등 등으로 범주화시키는 개념 자체가 해체되고 사라져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녀가 수정 보완하여 제시하는 최근의 주장은 성역할 해체이론이다. 이는 다분히 포스트 모더니즘 심리학을 표출하는 구성주의 이론이라 하겠다. 즉 양극성의 이원론적 모형에서의 보편적이며, 체계적이고 권위주의에 대한 반발을 보인다. 인간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지각을 적극적으로 구성해 가며 각 개인은 그 자신의 관심과 능력과 상황에 따라 성역할에서도 여성이 남성처럼 행동하고 사고할 수도 있고, 남성이 여성처럼 행동하고 사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여성으로 하여금 높은 지위에 올라 그가 가진 남성성과 여성성을 마음껏 정도껏 발휘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남성으로 하여금 양성성의 표출이 허용되는 역할을 하게 할 수도 있다는

요지이다.

초기에 제안되었던 양성성 이론은 풍요로운 인간성의 구비와 안정된 삶(well-being)의 한 모델이었다. 남자나 여자가 사회적 환경 속에서 보다 잘 적응하고 생활해 나가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여자도 필요에 따라서는 강력히 주장하고 냉철히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경제성도 있어야 하며, 엄격하고 지배적인 남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교적이고 따뜻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며 가정에서의 잔일들도 세밀해 해내야 하고, 부드럽게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 풍부한 인간성, 그리고 행복은 물론 이러한 심리적인 상태는 건강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이선자, 1995)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수정 보완된 양성성의 개념은 남성성 여성성의 긍정적인 혼합적 배합의 부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버겁게 부각되는 듯하다. 포스트 모더니즘적 관념의 파괴라든지, 고정 틀의 파괴 바람은 우리 사회의 온갖 다른 영역에서도 드러난다. 각종 기업에서는 기능 위주, 능력 위주의 역할 수행을 강조하여 기존의 위계를 파괴시키며, 청소년들은 급변하는 가치관으로 위아래 없는 질서 파괴를 살아간다. 유니섹스 모드라는 강타로서 젊은이들은 복장이나 외모의 꾸밈새 등으로 등장한 경직된 틀의 파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마케팅에서는 가격 파괴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소비자의 생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쨌든 “파괴”라는 단어는 우리의 생활은 물론 행동과 사고방식의 파괴를 표적으로 삼고 있으니 두렵기까지 하다. 지금의 추세가 세계화로, 미래지향적으로 황급히 달려가는 현재 라지만 깊게 뿌리내린 전통적인 우리 사회에서는 성역할 파괴와 더불어 성역할 해체주의 개념이 바람직한 혼합적 배합인지 아니면 혼란적 배합인지 번갈아 가면서 고무적이기도 하고 회의적이기도 하다.



#### 4. 창문이론 명명하기

이상으로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하여 첫 부분에서는 성역할 구분에 대한 이론들을 개관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해 보았다. 다음에는 이 연구의 두 번째 주제로, 이렇게 분석된 두 측면의 이론적 배경을 재조명해 보는 것이다. 먼저 구조적 측면을 근거로 한 이분법적 남녀 구조, 그 다음으로 구성적 측면을 근거로 한 양성성의 혼합 모형인 성역할 이론들을 본다. 이런 이분화에 컴퓨터 시대의 새로운 감각으로 이름을 붙여 보겠고, 그 다음으로는 각각의 이론들을 그림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서 성역할 구조주의와 성역할 구성주의의 관계가 어떤 양상을 띠는지를 관찰해 보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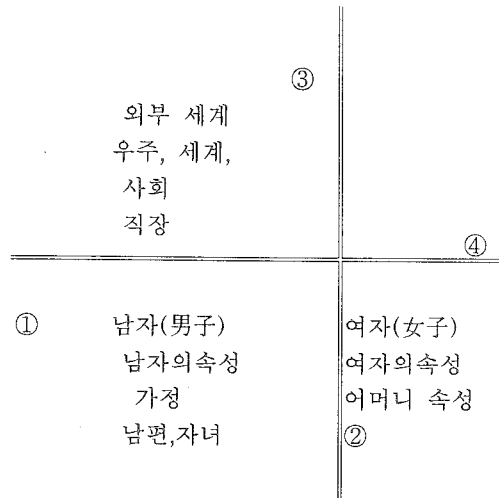
그러므로 위에서 자세하게 논의되었던 Sandra Bem이 열렬히 제안하는 새로운 이론의 전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시 사회에서 익숙하고 편안하여 고수하고자 하는 기본 개념은 변화하는데 많은 저항을 느끼는 것 같다. 여전히 역시 가정은 여성의 영역이고 직장은 남자의 영역이라는 사회 구조 가설의 생각은 신화적이다(Morrow, 1991). 남자는 그들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그의 직장과 사회 쪽이며, 여자들이 향하고 있는 방향은 바로 그 남편과 자녀들, 그리고 가정이며 집이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역할 구조가 생겼고 그에 따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 구조 가설의 이분법적 개념에다가 “창문(windows)”이라는 현대의 pc 단어를 대입해 봄으로써 남녀의 역할 구조와 구성을 파악하기에 용이하게 될 수 있다(그림2 참조). 또한 “창문 이론(Windows Theory)”이라는 새로운 감각으로 명명해 본다. 남녀의 차원을 논의할 때는 “남녀의 창문이론(Windows Theory of Man and Woman)”으로 명명하고,

부부의 차원에서 논의할 때는 “부부의 창문이론(Windows Theory of the Couples)”이라고 명명해 본다. 이 새로운 이름의 이론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에 함축된 아주 많은 의미가 명료하게 파악될 수 있다고 본다.

남자와 여자는 같은 시야가 제공되지 못한다. 뚫린 창문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방향도 달라서 여자에게는 사회나 직장, 그리고 세계로 향한 창문은 닫혀져 있다. 그러므로 볼 수 있는 각도도 내용도 틀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의 영향은 같은 잣대로 평가되고 기대되고 강화되어 왔다는 사실에서 그 부 불공정성이 잘 제시되고 있다.

그림2. 남녀의 구조 안에서 창문 달기



이 연구에서 그려진 그림들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명한 현상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미 본문에서 논의된 개념들이 그림화되어 시각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한다.

①은 남자의 창문이라고 이름지어 본다

남자에게 속해 있는 창문으로 훨씬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직장 세계, 사회 전반, 국제로, 세계로, 더 나아가서 우주 등 외부

세계를 향하여 활짝 열려 있다. 위의 표1에서 살펴본 남자의 특성들은 이 창문을 통하여 성취하려 온갖 사력의 노력을 다 한다.

②는 여자의 창문이라고 이름 붙여 본다.

여자에게 속해 있는 창문으로 이는 남편, 자녀, 가정, 집 쪽만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도록 구조되어 있다. 남자에게는 굳건히 닫혀 있고, 스스로 열게 되면 남자다움이 사라지고 사회나 주변에서 격려 받지 못한다. 여자에게는 표2에서 살펴본 여자의 특성을 살아가도록 조건화되고 강화되고 있다.

③은 남자의 외부 세계와 여자의 외부 세계를 구분하는 창문이다.

이 창문은 일반적으로는 닫혀 있지만 남자에게는 직업과 같은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는 열려 있다. 그러나 대부분 남자 스스로가 닫는 창이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여자에게는 원래 굳게 닫혀 있어서 남자의 세계로 진출하는 것은 격려되고 있지 않다. 개인에 따라서는 드물게 진출하는 여성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이문을 힘들여 조금 열 수도 있고 조금은 열려지고 있다.

④는 여자와 외부 세계를 가르는 창문이다.

전통적으로는 여자에게 거의 열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에는 현관, 문밖보다는 더 확장되어 지역사회 이외로도 참여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여성의 속성하고만 관계되는 여성의 세계만으로 제한됨을 볼 수 있다.

남자의 경우에 그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창문을 열고 나가야 하도록 강요되고 강화되어 있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자신의 문을 열고 나가지 못하도록 닫혀져 있으나, 이는 그녀가 속해 있는 남자나 남편의 사고에 따라서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인 필요에 따라서 문밖으로 진출할 수도 있다.

현대에는 더 이상 남자나 남편이나 아버지

는 가정 밖에서만 일하는 반면, 여자나 아내나 어머니는 가정 내에서만 일한다는 이런 관념이 모든 사람에게 전적으로 옳은 것은 결코 아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날이 갈수록 여성들이 가정으로부터 직장 세계로 나아가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러면서 가족 구조에 뚜렷한 변화가 자리를 잡는다. 이제 사회와 직장은 남녀 공동의 장으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남자 여자의 구조와 개념이 계속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구조나 구성은 변화를 보여야 할 것이며 구성의 확장된 개념의 설명이 첨가되어 그 두 측면의 조화를 이루어서 남녀 어느 쪽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를 목격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과업이라 하겠다.

## 5. 성역할의 구조에 대입해 본 성역할 혼합 모형의 시각화

여기에서는 구성적 측면을 근거로 한 양성성의 혼합 모형인 성역할 역할이론 또는 확장이론, 초월이론, 해체이론들을 들어 새로 명명한 “창문이론”의 틀에 대입하여 이를 그림으로 시각화시켜 보겠다. 이로서 본문에서 논의된 성역할의 구조와 구성과의 관계들을 따르 큰 설명 필요 없이 한눈에 파악될 수 있다고 하겠다.

### 1) 성역할 역할·확장형:

창문 열림의 방향이 바뀐다거나 열려 있는 상태에서 남자에게는 창문①이 거꾸로 열려서 사회로 나갔던 남자들이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후반기에 은퇴나 다른 계기로 집 속으로 들어온다. 창문②도 열리면서 집 속의 작은 일이나 가정에서 돌아가는 작은 섬세한 일들에 관심을 쏟는다. 그러나 모든 일이 순조로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적응되

있던 사회나 직장과는 달라서 여성적이라고 유형화(sex-typing)된 특성들에 적응을 요한다(위의 본문 참조). 또한 그림 3을 참조하고, 표기된 화살표의 방향들에 유의해야 한다.

여자에게는 창문③이 더욱 열리고 제2세 교육에 대한 관심을 쏟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활동을 활발히 참여한다. 또한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하여 외부 세계로 나가서 노력을 기울인다. 무엇이든 배우러 다닌다든지 평생교육 기관에 참여하여 지식을 더 쌓거나 완성시키는데 주력을 다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창문④도 노력하여 열면서 남성들의 세계라고 유형화된 세계에 진출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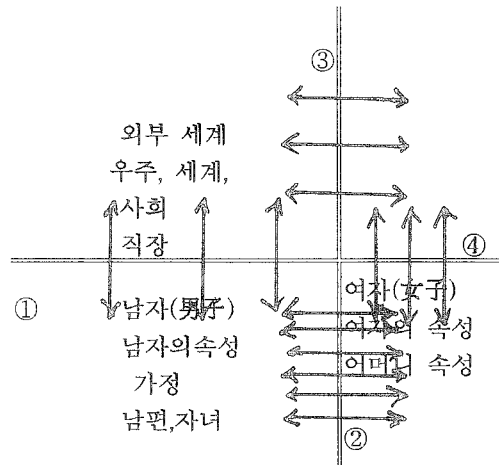
Jung은 이런 변화가 긍정적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그는 남편에게서 발견되는 부드러운 감정과, 아내에게서 발견되는 강력한 정신이 결혼 생활에서 위기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양성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변화는 성역할을 역행한다는 신호가 아니라 성역할의 확장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관찰을 하나 지적해 보겠다. 그것은 인생 후반기에 남자에게도 빈 등우리 현상(empty nest phenomenon)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찰이다. 그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도 남자와 여자에게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자가 인생 후반기에 성역할 역행 현상을 따라 집으로 들어와 보니, 여자는 이미 그의 성역할 역행 현상에 따라 가정 밖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관심을 쏟게 되므로 집에 없다. 자녀들도 없다. 이미 출가한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다 해도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으로서 집에 있는 시간도 적다. 아버지와는 관심도 다르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인생 후반기에 일명, “텅 빈 보금자리 증상”(empty

nest syndrome)을 겪는 경우가 된다.

이미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전통적인 모형(그림2)에서의 여성이 중년기에 빈 등우리 증상을 훨씬 더 먼저 겪는다. 직장에, 사회에 전념을 다하는 남편은 귀가하는 시간도 늦고, 출장도 잦으며 직업에서의 정상을 달리면서 관심은 가정 밖이다. 자녀들도 고교생이거나 대학생이 되어 거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다. 그래서 여자는 빈 등우리 현상을 일찍 겪으면서 곧 역행이론을 따라 외부 세계를 적극적으로 접한다. 이 시기를 거치는 빈 등우리 현상과 심리적인 영향에 대한 더 많은 논의는 다른 지면을 통하여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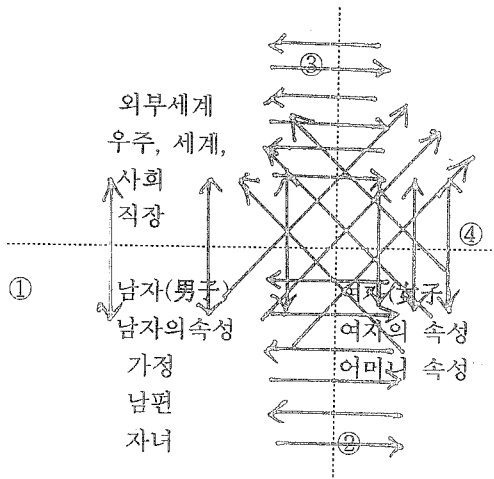
그림3. 성역할 역행·확장형



## 2) 성역할 초월형:

이 구조에서 유의해 할 점이 있다. 그림에서 보면 이전까지의 그림에서는 실선(solid lines)이었던 구분 선을 점선으로 표기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남성성, 여성성의 틀과 구조와 개념은 있어서 구분은 되지만 그것을 능가하게 됨이다. 여기서도 화살표의 방향들에 유의해야 한다. 모든 창문들이 다 열려 있고, 양 방향으로의 교통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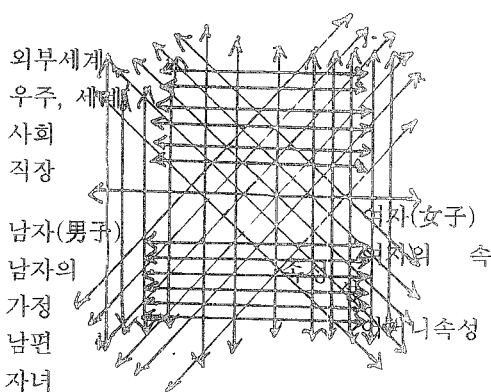
그림4. 성역할 초월형



3) 성역할 해체형:

여기에서 유의해서 관찰될 점은 어떠한 구분 선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젠 열려져야 할 창문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본문에서 강조되었듯이 남성성, 여성성의 틀과 구조와 개념 자체가 무너지고 해체됨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화살표의 방향들에 주목해야 한다. 성역할의 이런 이상주의적 주장이 다가오는 사회에서 잘 섞인 혼합이 될지, 갈피 없는 혼란이 될지? 변화가 끝간데 없을 정도로 변화되는 우리의 현 사회지만 잘 정돈된 틀 속에서 자라고 강화되고 기대되는 구조주의적 생각과 현실로는 극도로 새로운 물결의 뒤덮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상상해본다.

그림5. 성역할 해체형



III.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첫째로 성역할 구분에 대한 이론들을 개관 분석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심리학에 깔려 있는 구조주의와 구성주의 흐름을 발견하였다. 사회구조 가설의 엄격한 틀과 구조는 Bem이 최근에 수정 보완하여 심화시킨 성역할 해체이론과 극대 극을 이루며 쌍벽을 이루고 있어 가히 심리학의 미래에 큰 갈등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로 이렇게 분석된 두 측면의 이론적 배경을 재조명하여 “창문이론(Windows Theory)”이라는 새로운 감각의 이름을 탄생시켰다. 남녀의 차원을 논의할 때는 “남녀의 창문이론”으로, 부부의 차원에서 논의할 때는 “부부의 창문이론”이 된다. 아울러 여기서 참고하여 명기할 것은 본 연구를 통하여 등장된 많은 이론들의 명칭은 기존 문헌들에서 활용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 개념들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필자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 이름으로 표기했음을 밝혀 둔다.

또한 본문에서 흥미로운 관찰을 하나 지적해 보았다. 그것은 Jung의 성역할 역행·확장 개념 안에서 발견되어진 것으로, 인생 후반기에 남자에게도 빈 둥우리 현상(empty nest phenomenon)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좀더 면밀히 검토해 보면 그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도 남자와 여자에게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느낀다.

본문에 Bem을 통해서 소개되었던 Katherine March교수는 gender와 sex의 차이를 color(색상)과 light(빛)의 차이에 비유하였다. 그가 분석하는 바로 sex와 light은 물리적이고 자연의 것으로서 연속선 위에 있는 실체의 구성임에 비하여, gender와 color는 인위적이고 유형적이며 구조적이기 때문에 그 구분이 불연속적

이라고 설명하였다. Sandra Bem은 이 sex와 light 비유에서의 연속선의 개념에 매료되었다. 연속선 안에는 구조나 틀도 존재할수 없으며 특정 성의 개념마저도 무너지고 없어져야한다는 성역할 해체설을 굳혔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는 새로 명명한 “창문이론”의 구조에 구성주의의 내용을 대입하여 그림으로 시각화함으로써 두 부류의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성역할 심리학의 이론들의 맥을 찾아보았다. 이로서 이 연구를 통하여 개관적으로 고찰되었던 성역할 구분에 대한 이론의 구조와 구성과의 관계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이도 한눈에 파악되는데 일편의 역할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참 고 문 헌

김태련, 이선자 (1986). 한국 아동의 성역할 개념 발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심리연구지 제24호, 5-16.

방희정 (1966). 성 고정 관념: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실체. 여성심리. 김태련외 공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선자 (1995). 풍부한 인간성? 행복의 지수? 양성성의 심리학. Eve, 1995, 5, 84-85.

이선자 (1996) 남성문화는 있는가: 풍요로운 남성문화, 행복한 공존을 위하여. 함께 사는 사회, 삼성그룹 사외보, 1996, 4, 18-23.

이선자 (1996). 결혼과 가정생활에서의 남녀차이. 여성심리, 김태련외 공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조혜자 (1966). 여성 심리 이론. 여성심리, 김태련외 공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캐플란, 세드니 저 (1980): 김태련, 이선자, 조혜자 공역(1989), 성의 심리학, 이화여

자대학교 출판부.

Bakan, D. (1966) The duality of human existence. Chicago: Rand McNally.

Bem, S. L. (1972). Psychology looks at sex roles: Where have all the androgynous people gone? Paper presented at the UCLA Symposium on Women, 1972, May.

Bem, S. L. (1996) Androgyny Revisited: What and Where are it's Conceptual Counterparts Today? APA 104차 Annual Convention, Aug. 9-13, 1996, Toronto, Canada.)

최근에 이 audio-tape를 구하여 보내준 미국의 U. Mass.에서 박사과정중인 김현정 양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한다.

Block, J. H. (1973). Conceptions of sex role: Some cross-cultur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28, 512-526.

Eliade, M. (1965). Mephistopheles and the androgene: Studies in religious myth and symbol. New York: Sheed and Ward.

Hefner, R., Rebecca, M., & Oleshansky, B. (1975). Development of sex-role transcendence. Human Development, 18, 143-158.

Kaplan, A. G., & Sedney, M. A. (1980). Psychology and Sex Roles: An Androgynous Perspective. Boston. Toronto: Little, Brown and Company.

Matlin, M. W. (1996). The Psychology of Women. New York, Tokyo: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Morrow, F. (1991). Unleashing our unknown selves: an inquiry into the future of

femininity and masculinity. New York,  
Westport, Connecticut, London: Praeger.

Neugarten, B. L., & Gutmann, D. L. (1968).

Age-sex roles and personality in middle  
age: A Thematic apperception study.

In B.L. Neugarten (Ed.), Middle Age  
and ag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arsons, T., & Bales, R. E. (1955).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Glencoe, III.: Free Press.